

< 자기소개서 >

소속	○ ○ 고등학교	직위	교사	성명	○ ○ ○
----	----------	----	----	----	-------

자기소개 1

<성장배경> 지역을 잘 압니다.

저는 농어촌 지역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였고, 어릴 때부터 소에게 풀을 뜯기며 자랐습니다. 이런 성장과정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지역사회의 생태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학생 앞을 가로막지 않는 소몰이 교육에 익숙한 교육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교직생활도 33년 가운데 28년을 오로지 읍면지역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 평교사로 남해중고, 남해제일고, 대곡고, 경남과고에서 17년을 근무하였고, 부장 교사로는 대곡고, 경남과고, 남해제일고, 합천고, 남해중에서 11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3학년 담임과 진학부장을 도맡듯이 해 왔습니다. ‘자전거 한 대로 야간자습 의욕을 불러일으킨 참교사’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에 회자된 적이 있었고, 아침마다 학생 집으로 출근하여 지각습관을 선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밖에 여러 사례들 때문에 교직원과 지역민에게 열정적이고 헌신하는 교사라는 평을 들어 왔습니다. 시골 출신인 저로서는 지역학생의 어려운 형편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자기개발에도 힘써 ○○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였고, 수년간 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틈틈이 글을 써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사가 되고 나서는 학교가 크든 작든 해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곤양과 비슷한 지역 환경에서 성장하고 가르쳐 왔기에 누구보다 지역의 교육 여건과 학생의 특성, 학부모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이 지닌 문제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려는 의지도 남달리 강렬합니다. 곤양고등학교 교장이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으로는 지역학생에게 부족한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끌어올리고, 바깥으로는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곤양고등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자기소개 2

<지원동기> 마을에도 길이 있습니다.

곤양고등학교를 지역명문고로 육성하고 곤양고의 교훈과 교육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교육의 활성화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을 사랑하는 교육자로서 작은 학교도 알차고 참된 교육으로 얼마든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또 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존폐위기에 처한 지역학교가 한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작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참교육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강점이 있는 법입니다. 지역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의 뿌리입니다.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명산이요,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신령스럽다 하였습니다. 학교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좋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이 있다면 곤양고등학교도 머지않아 크게 이름을 떨칠 것입니다.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이자 활력의 원동력입니다.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며, 결국엔 온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사라진 마을은 하루아침에 꿈과 생기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지켜내야 하고, 그래야만 지역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마을로 나가서 배움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이러한 저의 교육적 신념과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곤양고등학교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어, 지역 인재를 키우는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싶습니다.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 3

<교육철학>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참된 미래인재 육성

자각, 성실, 협동이라는 곤양고등학교의 교훈은 저의 교육철학과 상통합니다. 저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참된 사람’으로 키운다는 신념으로 학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육은 스스로 서게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선다는 것, 곧 자립(자각)은 삶의 터전에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든 그곳에 뿌리를 내리려면 환경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흙이든 자갈이든 바위 틈새든 자연의 생명은 그렇게 자기 존재의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육은 그럴 힘을 키워주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황무지 같은 삶의 조건이더라도 아름답구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루도록 그 뿌리 내리는 힘을 길러주는 일일 것입니다.

교육은 서로를 살리게 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살린다는 뜻의 상생(협동)은 남을 돕고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일이면 서 또 나눠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풀이나 나무, 새와 짐승, 사람들까지도 일정한 터전에서 뿌리를 내릴 때 약탈이나 착취가 아닌 상생의 순환계 즉 애정에 기초한 관계망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소통과 협력으로 서로를 살리도록 돕는 일이 교육이어야 합니다. 학생은 이제 주변인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살리는 것이 스스로 서게 하는 조건입니다.

교육은 참되게 살게 하는 일입니다. 참된(성실) 삶이 곧 교육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되게 살게 한다는 것은 비록 세상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때로 비뚤어진 길을 보여줄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삶이란 허위와 기만, 왜곡과 날조, 위압과 폭력 등의 대척점에 있는 삶의 바른 자세이며 어떤 부정현실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선한 심지입니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삶은 참된 삶을 지향하고, 교육은 이런 삶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소개 4

<교육중점> 미래사회를 주도할 핵심역량을 기르겠습니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참된 미래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인성역량·탐구역량·진로 역량을 중점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첫째, 소통하는 인성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통과 협력이 더욱 절실해진 시대입니다. 작은 학교에 다닌다는 열패감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활기찬 교육공동체 일원이 될 때 학업은 물론 학교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동반 인성캠프>, <지역중학교 초청 술골제>, <미인존 운동>, <행복한 책 읽기>, <성장일기쓰기>, <학교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몰입하는 탐구역량을 기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했던 우리 아이들의 학습몰입도가 원격수업으로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는 몰입과 집중으로 끈질기게 탐구한 성과의 소유자들이고, 이것은 코로나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탐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과학점제를 주축으로 <배움중심 교육과정>, <교과융합 프로젝트수업>, <무학년제 교육과정>은 물론 <카페 정독실>, <학습코칭캠프>,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선후배학습멘토링>, 보충·심화중심 <학생맞춤 방과후학교> 등 내실있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리드하는 진로역량을 복돋우겠습니다. 다양한 현실과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도전해 봄으로써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자신의 진로를 디자인하는 역량을 가리킵니다. 지역사회 체험교육과 학교장의 진로교육지원을 중심으로 <학교장진로상담제>, <지역사랑 진로체험>, <학생맞춤 진학지도>, <내 꿈 3분 말하기>, <진로장벽 극복UCC만들기>, <진로가 행복한 책읽기>와 <진로캠프>, <학과체험>, <지역동문 초청강연> 등 진로개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 5

<경영철학> 그린 스마트 스쿨 경영으로 다시 날아오르겠습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취지에 발맞추어, 고교학점제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 학교공간을 혁신하고 친환경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첨단 교육시설로 개선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해 가면서 ‘도약하는 곤양고등학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간 혁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도서실이나 정독실을 학습, 휴식, 놀이 등이 모두 가능한 학생중심 복합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음료와 음악을 즐기며, 인터넷을 활용하고 독서, 하브루타, 자유토론, 발표 등 수업은 물론 쉬과 놀이까지 배려한 학생활동의 중심공간이자 쉼터입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린학교 실현을 목표로, 학교 자체가 환경교육의 장이 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건강을 우선하는 기법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을 혁신하며,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면서 자연과 상생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셋째, 최첨단 ICT기반으로 교육시설을 구축하여 **똑똑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인 스마트교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은 물론 교수학습 방식까지 혁신하여 교원과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해독능력 신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복합화**로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교류하고 학생과 마을 주민의 시설이용을 극대화하여, 마을과 학교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학교공간혁신을 통해 ‘**곤양공방**’을 설치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자기소개 6

<나의 각오>

33년이라는 저의 교육자 인생에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학교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치열하게 탐구하고 끈질기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혼신의 힘으로 신입생을 유치하겠습니다.** <학교장진로상담제>로 고교학점제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학교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지역학교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술골제>와 <직원체육>, <수업나눔>을 공유하고, <곤양사랑방>을 열어 지역의 예비고 학부모와 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학교홈페이지, 지역방송과 언론매체,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학교홍보로, 곤양고의 교육경쟁력과 신뢰를 확보하여, 외지서도 찾아오는 명문고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교육적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곤양공방> 운영으로, 목공교실, 도예활동, 창작교실 등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평생교육을 선도하고, 이에 <학부모 교육상담>을 연계하겠습니다. 지역맞춤 현장체험을 활성화하여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특수학급>을 개설하여 자녀를 부모 품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을 실천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육부·교육청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장이 앞장서 **그린스마트 학교**, 전원학교, 행복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학교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학교재정을 최대한 확보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창회와 지역기관, 지역인사들과의 막힘없는 소통으로 학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생미래를 담보하는 장학금도 마련하겠습니다.